

구직급여 지급액, 10개월 만에 1조원...“경기불황은 아냐”

지난해보다 신규 신청자 8.5% 늘어나
고용부 “경기불황 해석하기엔 선불리”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500만명 돌파

지난해 말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1500만명을 돌파했지만,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10개월 만에 다시 1조원을 넘어섰다. 10일 고용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333억원이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5월(1조150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말 신규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인원은 14만4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8.5%(1만1000명) 증가한 수치다. 다만 고용부는 이같은 결과가 경기불황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분석과장은 “3개월 연속 신규 지급 신청자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학과 함께 방역 진단 인력이 축소되는 등 3월 통계에서는 시장요인과는 무관하게 구직급여를 받으러 나오는 인원이 있

다”며 “취업자 증가폭은 여전히 30만명대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실업자도 2021년 초부터 계속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구직급여 통계만 가지고 경기불황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면서 또다시 고용보험기금을 충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마련해놓은) 예산 범위 내에 있고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출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수는 1500만7000여명으로 사상 첫 15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대비 9만3000명 늘어나면서 3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6만9000명(2.5%) 증가한 추세다.

이는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비자)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당연적용되면서 기존에 미가입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의 가입 효과로 보인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전체 가입자수는 378만5000명으로 1년 전 같은 시기보다 10만명 증가했다. 제조업 가입자는 생산 및 수출 감소세에도 2021년 1월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업 전체 가입자수도 1030만1000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24만9000명 증가한 수치다. 특히 코로나 19 일상회복에 접어들면서 대면활동 정상화의 영향을 받은 숙박음식업이나 보건복지 분야에서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교육서비스나 공공행정 분야에서 가입이 둔화되면서 전체 서비스업 가입 증가폭은 둔화됐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20대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6000명 줄어든다. 20대 가입자는 지난해 9월(-9000명), 10월(-1만7000명), 11월(-2만9000명), 12월(-3만명), 올해 1월(-4만명), 2월(-2만9000명)에 이어 7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도소매, 사업서비스, 보건복지 분야 감소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대를 제외한 전연령대에서는 가입 증가가 두드러졌다. 60세 이상(22만2000명), 50대(10만1000명), 30대(4만8000명), 40대(2만4000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840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9만1000명 늘었다. 여성 가입자는 660만6000명으로 17만8000명 증가했다. 최이슬기자

“집값 바닥” 41.5% vs “더 떨어질 것” 58.5%

반등은 “2025년 이후” 가장 많이 응답해

‘집값 바닥론’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앱 접속자 193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지금 집값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8.5%가 ‘아직 바닥 아니다. 더 떨어질 것 같다’고 응답했다. 반면 ‘바닥이다. 곧 오르거나 보합일 것이다’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41.5%로 나타났다. 집값 추가 하락을 전망한 응답자에 그 이유를 묻은 결과, ‘최근 1~2년 내 올랐던 가격 상승분이 덜 하락해서’가 2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22.7%) ▲미분양 적체, 분양시장 저조 등의 분위기 영향으로(21.5%)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아서(19.6%) ▲매물 사려는 매수세보다 팔려는 매도 움직임이 더 많아서(10.1%)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집값이 ‘바닥’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매물 거래가 늘고 매물이 소진되어서’를 28.1%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집값이 최고점 대비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24.0%) ▲금리 인상 완화되는 기조여서(23.3%) ▲매물 호가, 실거래가격 올라서(13.2%) ▲정부 규제 완화 영향 때문(10.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값이 언제 반등할지에 대한 예상 시기를 묻은 질문에는 ‘2025년 이후’가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4년(33.9%) ▲2023년 4분기(13.6%) ▲2023년 3분기(5.8%) ▲2023년 2분기(2.0%) 순으로 나타났다.

오유나기자

“기름값보다 싸다”...포터·봉고EV 9만대 판매 돌파



용달이나 택배 같은 중 소형 화물 운송에 주로 사용되는 1톤 트럭 전기차 모델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다. 연료비가 적게 들고, 유지보수 비용도 저렴하면서 보조금 등 각종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1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현대차의 1톤 전기 트럭 ‘포터2 일렉트릭(이하 포터EV)’은 지난해 말 누적 판매 4만5000대를 기록했다. 이어 올해 1~3월에도 5000대 이상 팔리면서 누적 5만대 판매를 넘어섰다.

2019년 12월 처음 출시된 포터EV는 출시 첫 해 1000대 이상 팔렸으며, 이후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2만대 이상 판매됐다. 2021년 2월 내장탑차·파워게이트·윈바디 등 특장차 모델이 더해지면서 고객층이 확대됐다. 기아의 전기 1톤 트럭 ‘봉고3 EV(이하 봉고EV)’도 지난해 말 누적 등록대수 3만대를 돌파했다. 올해 1~3월에는 7000대 이상 판매되며 포터EV를 앞섰다. 특히 지난해 7월 보조배터리가 필요 없는 방통탑차 모델이 출시되면서

보조금·지원금 많아 차량 저렴

판매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다. 포터EV와 봉고EV가 지금까지 함께 9만대 가까이 팔릴 정도를 인기를 끈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가격’이 꼽힌다. 차 가격은 일반 모델보다 훨씬 비싼 4000만원대이지만,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소상공인 국비 지원금 등을 더하면 거의 절반 값에 살 수 있다. 포터EV나 봉고EV는 시중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팔리는 영업용번호판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었다. 영업용번호판 무상 제공은 지난해 4월 중순 끝났지만 전기 트럭 수요는 오히려 늘었다.

기름값 상승으로 연료비가 저렴한 차량을 찾는 수요가 늘었고,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 여전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저렴하고 엔진오일 교환 등을 위해 정비소를 자주 찾을 필요가 없는 것도 장점이다. 전기차여서 순간 가속 성능이 좋고, 소음이나 매연도 없다. 현대차와 기아가 장악한 국내 1톤 전기트럭 시장의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사 비야디(BYD)는 지난 6일 1톤 전기트럭 ‘티포케이(T4K)’를 출시하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T4K는 1톤 전기트럭 중에서 가장 큰 82kWh 배터리를 장착해 포터EV나 봉고EV보다 주행거리가 길다. 타타대우상용차도 오는 2025년을 목표로 1톤 전기트럭을 국내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이슬비기자

외면받던 ‘못난이’ 농산물, 고물가에 ‘맛난이’로

한때 유통 규격서 등급 외로 분류돼 폐기 처분



가치 상품을 직접 매입해 전국 인구의 약 50%가 밀집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판매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상품은 ‘수산물’로 오징어, 붉은 새우살 등 두 가지 상품을 판매하고, 과일에서 표피에 상처가 있거나 모양이 예쁘지 않지만, 엄격한 당도 선별 과정을 거친 ‘반전 참외’를 선보인다. 채소에서는 표고버섯, 오이, 무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이 같은 못난이 농산물 인기엔 힘입어 11번가는 ‘어글리러블리’를 운영 중이다. 재배 과정에서 흠집이 나거나 모양과 색깔이 고르지 못한 못난이 농산물들을 모아 선보이는 11번가의 생산자 협력 브랜드로, 시즌별 미니밤호박, 감자, 고구마 등 농산물부터 우렁, 고동어, 삼치, 갈치 등의 수산물까지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가격은 일반 상품보다 평균 20~30% 저렴하다. 홀플러스 역시 모양과 크기가 유통 규격에서 등급 외로 분류되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 상품을 ‘맛난이’ 농산물이라고 자체 명명해 판매 중이다. 맛난이 농산물의 가격은 일반 상품 대비 약 20~30% 저렴하다. 지난 2월 판매한 ‘맛난이 대파’가 대표적으로, 이에 힘입어 전체 대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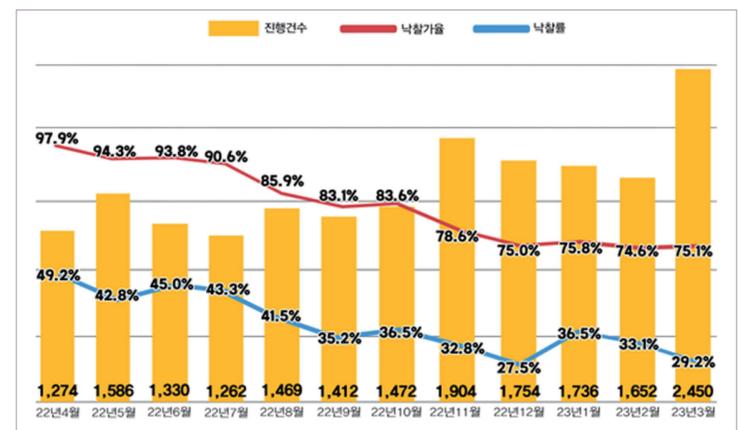
이 외에도 홀플러스는 사과, 토마토 등 과일을 비롯해 감자, 오이, 버섯, 대파, 양상추 등 채소 품목 등 저렴한 ‘맛난이 농산물’ 판매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낮출 가성비 상품 강화를 위해 비규격 농산물 판매에 적극적이다. 못난이 양파 판매에 이어 수입식품으로까지 확대해 캘리포니아산 ‘못난이 호두’를 선보였다. 캘리포니아산 ‘못난이 호두’ 900g은 맛과 영양, 크기는 동일하지만 색깔이 약간 어두운 것이 다른 상품으로 시중가 대비 저렴한 5980원에 판매한다. 뉴스

‘영끌’ 아파트 경매시장 쏟아지나... 경매 진행 1년새 73% 증가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전년 동월과 비교해 7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과 매매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경매시장으로 유입되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10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450건으로 전년(1652건) 대비 48.3%, 전년 동월(1415건)에 비하면 73.1% 증가했다. 이는 낙찰률 하락으로 유찰된 아파트가 쌓이는 탓도 있지만, 경매시장으로 유입되는 신규 건수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신규 건수는 698건, 2월 743건으로 조사됐는데, 3월에는 1193건으로 전년 보다 무려 450건이 증가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과 매매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경매시장으로 유입되는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아파트 진행 건수 절반이 ‘신진’



기록했다. 경기 아파트 낙찰률은 30.3%로 전년(37.9%)보다 7.6%p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74.2%로 전월(71.9%)보다 2.3%p 상승했고, 평균 응찰자수는 0.8명이 늘어난 14.5명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1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에 응찰자가 다수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반등했다. 인천 아파트 낙찰률은 27.6%로 전년(22.4%)

에 비해 5.2%p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68.2%로 전월(66.4%)보다 1.8%p 올랐지만,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지방 5대 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대구지역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대구 아파트 낙찰가율은 72.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전월(67.0%)에 비해 5.8%p 상승했는데, 감정이 1~2억 원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낙찰가율 강세를 보였다. 김재환기자